

## 5.6 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도덕 판단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과 이 현 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인지에 관한 연구는 아동이 타인을 어떻게 특징짓고 그들의 내적·심리적 경험을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밝힌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의도·감정·지식을 추론할 수 있는 어린이의 능력이 사회를 알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인지가 사회적 감수성과 연결되어 사회적 판단을 바르게 한다면 개개인이 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사회적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인지는 조망수용능력과도 통한다. 조망수용능력이란 자기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분야는 Piaget와 Inhelder (1956)의 시각조명, 즉 아동이 타인의 시각경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sup>1)</sup> 조망수용이란 다시 말해서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중 세가지 조망의 발달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각조망은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지조망은 타인의 생각, 지식, 견해를 추론 평가하는 능력이며, 감정조망은 타인의 감정상태를 평가하는 능력이다.

Piaget와 Inhelder의 시각조망 연구는 Piaget의 아동발달 중심 이론인 자기중심성과 관련이 있다. Piaget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정의는 “자기 자신의 관점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로 내렸다. 그러나 Piaget (1951)와 Mead (1934)는 사람과 사물이 성숙한 방향으로 발달해 자기중심적인 조망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동은 인지적,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됨에 따라 성인에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습득하게 되며,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외형적인 행동의 결과보다는 그의 의도나 사고, 동기 등에 대해 추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행동의 결과보다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의 행위에 대한 동

---

<sup>1)</sup> 김 정오, “모자 관계에서 감정조망과 인지조망,” 「배아제 연구」, 한국심리학회 발달심리 연구회(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66.

기나 의도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sup>2)</sup>

Piaget 는 과실, 거짓말, 도둑질 등의 도덕적 책임감에 관한 연구에서 문제 사태를 제시할 때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아주 나쁜 경우와 좋지 않은 의도에서 했지만 결과가 조금 나쁜 경우의 두가지 행동 중 어느 아동이 더 나쁜가? 왜 나쁜가?에 대한 반응을 얻어 아동의 도덕성은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sup>3)</sup>

이러한 Piaget 의 도덕발달 이론 및 그가 사용한 문제 사태의 모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 판단력간의 관계를 알아 봄으로써 인지적 측면이 도덕적 판단력에 있어 행위의 의도를 고려하는 정도를 알아보고, 도덕적판단력에서 행위의 의도를 알아보며, 조망수용능력의 나이와 성별에 따른 발달의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문제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I]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판단력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가?

I-1. 지각적 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판단력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가?

I-2.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판단력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가?

I-3. 감정적 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판단력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II]

조망수용능력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조망수용

조망수용능력이란 타인의 사고나 느낌, 행동 또는 시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즉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로써 한 개인이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인지적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 용어는 흔히 역할수행이란 용어와 바꾸어 사용된다. 아동이 타인의 감정·사고 또는 의도를 정확히 추론하고 이해하려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동이 타인을 개념

<sup>2)</sup> J.Piaget, 「아동·청년발달론」, 김 동규(역) (서울: 형설출판사, 1982), pp.171~194.

<sup>3)</sup> 앞 글, pp.171~194.

화하는 방식은 그의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특정연령시기에 있어 어떤 개념유형과 정신과정이 사용되는지를 밝혀줌으로써 아동의 인지발달에 보다 중요한 사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조망적수용능력은 최근에 사회적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행동발달면에서 재인식되고 있다. 조망수용에 대한 연구는 Piaget 와 Inhelder 의 「산의 실험」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아동의 공간조망능력의 발달에 대해서 밝혔다. 그 후속 연구에서 공간조망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고내용을 추리하는 인지조망과 타인의 느낌이나 기분을 추리하는 감정조망에 관한 것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

Piaget 는 공간조망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7세 이전의 아동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의 입장, 관점 또는 견해를 취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기중심적인 아동은 어느 측면에서 다른 측면으로 주의를 돌린다고 자기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으로 자기를 갖다놓아 본다든가하는 정신적 조망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중심성의 경향은 아동 사고의 어느 한 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으로 나타나, 아동들은 양의 보존개념, 관계개념, 도덕판단, 공간개념, 의사소통에 있어서 판단의 왜곡 현상을 보인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중심성이 극복되면, 이전에 보였던 판단의 왜곡 현상이 소실된다. 그러므로 Piaget 에 의하면 중심성의 극복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up>4)</sup>

일찌기 Piaget 등은 조망적수용을 사회·인지적 탈중심화의 발달로 보았다. 즉 전조작기 아동들은 사물의 역동성 보다는 고정적인 한 면에 초점을 맞추는 지각적 특징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지닌 아동은 자기의 관점에서 사물을 판단하려는 인지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조망적 사고와 대비되는 인지능력이다.

조망수용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하여 여러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있으며 이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조망수용을 사회적 탈 중심화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Piaget 식 접근법이다.

둘째는, 구조에 관심을 두는 구조적 발달 접근법이다.

이와 같은 조망수용에 관한 연구들은 그 대상 영역에 따라 지각적, 사회적, 정의적, 도덕적 추리 등으로 세분하여 변인을 설정하고 있다.

서봉연은 조망수용을 공간조망, 감정조망, 인지조망으로 나누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망수용의 활동영역에 따라 Shantz (1975) 가 분류한 방법에 의해 조망수용능력을 지각적 조망수용능력, 인지적 조망수용능력, 감정적 조망수용능력으로 나누었다.

#### A. 지각적 조망수용

지각적 조망수용능력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sup>4)</sup> 서 봉연 (1978), "한국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관한 일 연구," 「뽀아제 연구」, 한국심리학회 발달심리 연구회 (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86.

아는 능력과 특정의 관찰 위치에서 대상이 어떻게 보일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포함된다.<sup>5)</sup> 즉 공간적 배열에서 타인의 시각적 관점을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조망수용의 효시적인 연구인 「산의 실험」에서 Piaget 와 Inhelder 는 4 세에서 11 세까지의 100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삼차원적인 산을 구성하여 어린이와 실험자 사이의 탁자위에 놓았다. 산에 대한 조망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 아동에게 몇 개의 산 그림을 보이고, 그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 하나와 상대편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들 자신이 보는 산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실험자와의 위치를 바꾸어 반대편에서 산을 보게 했을 때에도 아동은 그 자신이 보는 관점만 지적하였다. 즉 그는 종전까지 자기가 보았던 반대 관점을 재구성할 능력이 없었다. Piaget 는 이것을 아동에게 있는 자기중심적 특성의 좋은 예라고 말하였다.<sup>6)</sup> Piaget 는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하여 조망수용능력에 있어서 세가지의 발달단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제 1 단계에서는 각 인형들의 시각적 관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보는 관점과 인형이 보는 관점을 동일시 하는 자기중심적 오류를 나타낸다(4~6세).

제 2 단계에서는 아동 자신이 보는 산의 형태와 인형이 보는 산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나 그 차이를 밝히는데 오류가 생긴다(6~7세).

제 3 단계에서는 아동자신의 관점과 인형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7~9세).<sup>7)</sup>

이러한 시각적 조망수용능력의 단계적 발달은 같은 자극자료를 사용하여 반복 실험한 다른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Piaget 이후의 연구들은 실험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아동에게 요구하는 반응형태에 따라, 공간조망을 이해한다고 보는 연령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Flavell, Botkin, Fry, Wright 그리고 Jarvis 는 실험도구로 세계의 산 대신에 나무로 된 기하학적인 입방체를, 그리고 반응방법을 구성방법으로 택하여, 2 학년에서 11 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에 대해 16 세 아동들(11 학년)도 40 %만 정답을 했다고 보고했다.<sup>8)</sup>

Laurendau 와 Pinard 는 Piaget 와 Inhelder 의 실험을 가장 유사하게 반복했던, 산 모형 대신에 산과 비슷하게 보이는 서로 크기가 다른 종이로 만든 3 개의 원뿔을 도구로 사용하여

<sup>5)</sup> 이 춘재 (1983), “공간조망 과제에 있어서의 아동의 해결 방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p.3.

<sup>6)</sup> 매리 앤 스펜서 플라스키 (1980), 「어린이를 위한 피아제 이해」, 이 기숙, 주 영희 (공역), (서울: 창지사, 1982), p.174.

<sup>7)</sup> J. Piaget and Barbel Inhelder (1956), *The Child's Conception of Space*, (New York : W.W. Norton & Company, 1967), pp. 210~213.

<sup>8)</sup> J.H. Flavell, P.T. Botkin, C.L. Fry, J.W. Wright and P.E. Jarvis (1968), *The Development of Role-ta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Children* (New York : Wiley), pp. 55~70.

재인방법을 측정하였다. 4세~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 12세 아동중에서 28%만이 정확한 반응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9)</sup>

Broke는 Piaget의 실험과제를 어린이의 능력에 맞게 수정한 실험결과와 Piaget의 실험을 비교하였다. Piaget 실험에서의 세계의 산 모형 대신에 장난감, 말과소, 로보트, 인형과 같은 익숙한 대상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조망을 재현하는 방법도 바꾸어 어린이가 회전판을 회전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조망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과제 내용을 아동의 반응 양식에 맞도록 수정한 실험에서 3~4세 아동의 80% 정도가 정답을 하는데 반하여 Piaget의 원 실험에서는 3세는 42%, 4세 67% 밖에 정답을 못하였다. Broke는 이 연구에서 과제의 성질과 반응양식이 적절하면 3~4세 아동도 타인의 조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shbein과 그의 동료에 의한 연구로서 3~5세 아동들도 친숙하고 쉽게 변별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하여 회전방법으로 반응을 요구하였을 때, 90% 이상 정확히 타인의 조망을 추론하였다고 했다.<sup>10)</sup> 다시 말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자극과 비언어적인 반응을 사용하면 유아들도 올바르게 조망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자극자료가 사용될 때는 청년기에도 그 추론이 정확하지 못했다. 많은 연구들이 발표한 것은 7세쯤 발달한다고 보고했었으나, 최근에는 자극자료가 단순하면 3세 혹은 더 어린 연령층에서도 획득된다고 밝혀지고 있다.<sup>11)</sup>

Flavell은 타인의 공간조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연령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친숙성, 변별성 같은 요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발달수준의 차이로 설명하였는데, 수준 I의 아동들은 동일한 대상자극이 자기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타인이 대상자극의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볼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Broke와 Massankay 등의 연구는 수준 I의 능력을 재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Piaget와 Inhelder, Flavell 등, Laurendau와 Pinard 등의 실험은 수준 II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Flavell은 분석했다.<sup>12)</sup>

#### B. 인지조망수용

인지조망수용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나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정

<sup>9)</sup> M. Laurendau and A. Pinard (1970),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Space in Child*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를 이 춘재 (1982), "아동의 공간조망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 발달심리 연구회 (편),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p.132에서 재인용.

<sup>10)</sup> H.D. Fishbein, S. Lewis and K. Keiffer (1972), "Children's Understanding of Spatial Relations : Condition of Perspective," *Development Psychology*, 17, pp.21~23.

<sup>11)</sup> R.S. Marvin, M.T. Greenberg, D.G. Mossler (1976), "The Early Development of Conceptual Perspective Taking," *Child Development*, 47, p.511.

<sup>12)</sup> 이 춘재 (1982), p.134.

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말한다. Shantz 는 아동의 인지조망에 관하여 다음의 3 가지 방법으로 연구된다고 하였다.

첫째, 의사소통행동에 관한 연구로서,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내용을 전달시키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련된 연구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지식 정도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인지적 조망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게임놀이에 대한 연구인데, 게임은 상대방의 전략이나 생각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야기 분석법으로 이는 다시 세가지로 나뉘어 진다.

① 아동에게 투사적 형태의 이야기 과제를 주고 이를 각 이야기 주인공의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는 Feffer 의 역할대행도구와 ② 사회적인 딜레마 상황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 관점에서 딜레마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게 하는 Byrne 의 인간 상호간의 추론모델 ③ 타인과 다른 정보량이나 유형을 가진 이야기를 제시하여 반응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sup>13)</sup>

인지적 조망사고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인 자기중심화 위에 적어도 2,3 단계의 뚜렷한 인지적 조망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어느 시기에 발달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Flavell 은 방관자적 과제를 사용하여 인지적 조망능력을 연구한 결과, 초보적이고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이 능력이 3,4 세 경에 시작된다고 하였다.<sup>14)</sup>

Urberg 와 Docherty 는 인지발달과 연관된 발달 단계로 인지적 조망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에게 맞도록 내용과 구조를 고려한 역할 수행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세 아동의 50%가 조망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sup>15)</sup> 이와 같은 결과는 Piaget 의 주장과 달리, 어린아동들도 인지적 조망능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Garvey 와 Hogan 은 일반적인 인지조망수용능력의 측정방법이 어린아동의 능력 이상의 인지적 기술과 언어적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능한 자극재료를 단순한 형태로 하고, 반응방식에서 언어능력을 통제하면 어린 아동들도 타인의 생각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6)</sup>

인지조망사고 이론은 전반적인 인지발달론과 연결되어 발달단계로 설명된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단계들 간에 합치점이 없으며, 각 과제들 자체가 특수하여 어느 한 연령의

<sup>13)</sup> C.U.Shantz (1975),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5, ed. E.M.(Hetheringt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83~290.

<sup>14)</sup> J.H.Flavell, P.T.Botkin, C.L.Fry, J.W.Wright, D.E.Jarvis (1968), pp.70~81.

<sup>15)</sup> K.A.Urberg, E.M.Docherty (1976), "Development of Role-taking Skill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12, pp.198~203.

<sup>16)</sup> C.Garvey, R.Hogan (1973), "Social Speech and Social Interaction; Ego-Centrism Revisited," *Child Development*, 44, pp.562~568.

아동들의 독특한 능력만을 측정한다는 지적이 있다.<sup>17)</sup>

인지조망수용에 대한 전체 발달순서를 정확하게 기술한 것은 아직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Selman과 Byrne의 모델이다. Selman과 Byrne는 아버지와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친구에게서 나무위의 고양이를 구해달라고 부탁 받게 되는 한 소년의 딜레마 상황이 있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모델을 제안했다.

수준 0 : 자기중심적 조망수용단계 (4~6세). 이 단계 초기의 아동은 자기와 타인이 서로 다른 실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진정한 주체로서 분명히 표상하지 못한다.

수준 1 : 주관적 조망수용단계 (6~8세). 이제 아동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관성을 깨닫게 되며, 그들이 각기 독립적인 인지조망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자기와 타인은 모두 정보의 능동적 처리자이며 평가자로 인정된다.

수준 2 : 자기 반성적 조망수용단계 (8~10세). 이 수준의 초기의 아동은 타인이 아동 자신이나 다른 타인의 추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이 타인의 조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도 또한 인식한다. 더우기 아동은 타인이 아동의 조망을 수용하는 것이 아동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수준의 후기에 이르면 아동은 타인이 아동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타인도 마찬가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수준 3 : 상호 조망수용단계 (10~12세). 아동은 그와 다른 사람들이 2자 관계에 있어서 비록 그들 자신이 그 2자 관계의 일원일지라도 제 3자의 공정한 관찰자의 조망을 취할 수 있음을 안다.<sup>18)</sup>

### C. 감정조망수용

감정조망수용능력이란 타인의 감정상태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이다. 즉, 타인의 감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능력을 설명하는 용어로 감정이입이 있는데 이 말은 인지적 반응, 즉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감정적 반응 즉,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sup>19)</sup>

감정에 대한 추론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없이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인간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장례식에서

<sup>17)</sup> M.O.Landry and K.Lyons-Ruth(1980), "Recursive Structure in Cognitive Taking," *Child Development*, 51, pp.386~394.

<sup>18)</sup> R.L.Selman and D.E.Byrne(1974), "A Structural Developmental Analysis of Levels of Role Taking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5, pp.804~805.

<sup>19)</sup> Shantz(1975), p.277.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퍼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느낌을 이해할 때 타인의 독특한 조망을 고려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Flavell 은 감정에 대한 인지를 다음의 3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비추론적 감정이입이라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이 아동에게서 유사 또는 관련 감정을 야기하지만(일종의 감염현상), 이러한 유발된 감정에 적절한 사회인지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정서반응은 아동 자신의 과거의 고통스런 경험과 연결되는 단서와 지각적으로 유사한 단서의 건인력에 의한 수동적이고 불수의적인 것일 수도 있다.

둘째는, 추론적 감정이입(혹은 감정이입적 추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동은 스스로 어떤 관련 감정을 가짐과 아울러 타인의 감정상태에 관해 추론한다.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에서의 감정이입은 여전히 추론적이다.

세번째는, 비감상적 추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되, 자신은 그와 관련된 감정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전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다른 사람이 감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적절한 정서 반응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sup>20)</sup>

감정조망수용능력에 대한 Kurdek 과 Rodgan(1975)의 연구에서 유치원 어린이 부터 국민학교 6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지각, 감정, 인지조망의 과제를 주고 연령에 있어서의 조망능력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지각조망에 있어서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보다 더 훌륭히 수행했다는 결과이다.<sup>21)</sup>

Broke 는 아동의 감정조망을 알아보기 위해 짧은 이야기와 함께 그림을 보여주고, 주인공의 감정을 선다지에서 선택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는데, 3~3½세의 아동들도 타인의 감정을 조망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Piaget 와 Inhelder 의 실험에서, 9세 이전의 유아가 타인의 조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한 것을 재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인지구조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조망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22)</sup>

Marvin 과 그 동료학자는 2.5~6.5세 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4세 유아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의 개념적 견해를 파악할 수 있고, 조망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23)</sup>

Gnepp 의 아동의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상황단서, 얼굴 표정단서, 얼굴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그림, 그리고 불일치 단서에 따르는 이야기등

<sup>20)</sup> J.H.Flavell(1977), p.149.

<sup>21)</sup> L.A.Kurdek and M.M.Rodgan(1975), "Perceptual,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n Kindergarten Through Six-grad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p.643.

<sup>22)</sup> H.Broke(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pp.262~269.

<sup>23)</sup> Marvin, Greenberg, and Mossler(1976), pp.511~514.



네 가지 조건을 포함하는데 나이 어린 아동은 얼굴 표정에 대한 감정을 추론하는데 기초를 두고 나이가 들수록 얼굴 표정에 대한 감정 추론이 감소한다. 모든 나이의 어린이는 상황단서와 얼굴 표정단서 둘 다 사용한다. 불일치 상황단서일 때 얼굴 표정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또 감정을 추론함에 있어서 불일치 단서를 일치시키는 정도와 방법이 점차적으로 변화한다고 했다.<sup>24)</sup>

Reichenbach와 Masters(1983)의 연구에서는 감정판단에 있어서 표정단서를 사용하는지 상황단서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얼굴 표정이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줘서 표정단서를 근거로 다른 어린이의 즐거운, 화난, 슬픈 또는 중간 감정상태를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상황단서만 있는 경우와, 상황단서와 표정단서가 둘 다 있는 경우에도 감정판단을 하도록 했다. 나이 든 어린이는 복잡한 단서가 주어졌을 때 어린아동보다 나이 든 아동은 상황단서를 표정단서보다 감정상태를 인지함에 있어서 더 정확히 한다. 복잡한 단서가 상황과 얼굴 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이 어린 아동은 표정단서에 더 의존을 하고 반면에 나이 든 아동은 상황적 단서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Gove와 Keating의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이 평범한 상황에서 느낌 상태를 간단히 해석해서 감정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구별해야 한다. 구별에 있어서는 연령간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설명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주관적 특징에 관한 추론을 요구하는 설명에서 어린 아동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sup>26)</sup>

Kurdek과 Rodgon의 연구에서는 조망수용, 인지적 조망수용, 감정적 조망수용의 발달에 관해 연구했다. 지각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학년이 높아 질수록 증가하나, 감정적 조망수용능력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이가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투사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sup>27)</sup>

석 정미의 연구를 보면 감정조망수용영역에서 의의있는 성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상황적 단서와 표정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황적 단서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sup>28)</sup>

Eisenberg-Berg와 Lennon의 감정이입과 이타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아에게서 쉽게 반응을 알아 볼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를 사용했다. 여기서 남자아동과 여자아

<sup>24)</sup> Gnepp(1983), "Child's Social Sensitivity : Inferring Emotions from Conflictin Cu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9, No.6, pp.805 ~ 814.

<sup>25)</sup> L.Reichenbach, and J.C.Master (1983), "Children's Use of Expressive and Contextual Cue in Judgment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54, pp.993 ~ 1004.

<sup>26)</sup> F.L.Gove and D.P.Keating (1979), "Empathic role-taking Precurso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5, pp.594 ~ 600.

<sup>27)</sup> Kurdek and Rodgon(1975), p.643.

<sup>28)</sup> 석 정미, "아동의 대인지각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79, p.27.

등 사이의 감정이입은 여자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sup>29)</sup>

문 회영의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즐거운 상황과 슬픈 상황을 이야기하고 비언어적인 반응을 사용하였다. 남아와 여아간의 의의있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동의 감정추론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3~4세경이면 이루어지고, 행복에 관한 이해는 3세면 가능하다고 보았다.<sup>30)</sup>

## 2. 도덕성

### A. 도덕성의 개념

인간 사회의 바탕이 되고 있는 도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도덕은 라틴어의 *Mores* 에서 나왔으며, 예의범절, 습관, 생활양식을 뜻하고, 이 도덕은 윤리의 어원과도 같은 것으로 미루어, 도덕은 윤리와 더불어 정신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보겠다.

Kohlberg는 도덕성이란, 개인에 의해서 내면화 되어진 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화적 행동 규칙으로서의 양심이라고 정의했고,<sup>31)</sup> Piaget도 도덕성은 규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도덕성의 발달에 있어서의 본질은 개인이 이러한 규칙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32)</sup> 또한 Piaget는 “모든 도덕적 내용이란 어떤 규범 자체를 말하며 개체가 이러한 규범을 어떻게 지키느냐 아니냐가 바로 도덕의 본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33)</sup>

이 돈희는 도덕성이란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규칙, 혹은 원리, 즉 규범을 준수하는 행위라고 보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성향이라고 말하며, 그 능력 혹은 성향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신념, 즉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4)</sup>

김 재은은 도덕성이란 성격의 특징을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문제되는 특징이라고 한다. 즉 사회쪽에서 보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준이 있고, 그것으로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는 평가를 한다. 한편 개인쪽에서 보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 면을 합쳐서 도덕성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5)</sup>

서 봉연, 이 규용은 도덕성이란 사회적 소산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 바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발달(신체 및 정신적)과 교육에 의해 점차 더득되어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6)</sup>

<sup>29)</sup> N. Eisenberg-Berg and R. Lennon, "Altruism and the Assessment of Empathy in the Pre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51, 1980, pp.552~557.

<sup>30)</sup> 문 회영, "5·6세 유아의 감정이입과 이타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985, p.33.

<sup>31)</sup> L. Kohlberg,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 Moral Ideology,"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p.384.

<sup>32)</sup> J. Piaget,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6, p.13.

<sup>33)</sup> J. Piaget, 「아동청년 발달론」, 김 동규(역), p.175.

<sup>34)</sup> 이 돈희, 「도덕교육」(서울:교육과학사), 1978, p.428.

<sup>35)</sup> 김 재은, 「유아의 발달심리」(서울:창지사), 1984, p.366.

<sup>36)</sup> 광 해신, "유아의 도덕성 증진을 위한 성경이야기의 구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986, p.27.

이처럼 도덕의 본질은 철학적, 윤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고, 학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위의 관점들을 종합해 보면, 도덕성이란 규칙의 한 체계로서 성격의 특징을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문제되는 특징, 인간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규칙을 준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의지로 도덕을 대로 나타나는 행동, 그리고 개인에 의해 내면화된 사회적 행위의 문화적 규칙으로서의 양심으로 성장발달에 의해 발달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7)</sup> 따라서 도덕성의 발달이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화적 규칙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에서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내면화라고 하는 현상의 어떤면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세 갈래의 다른 이론적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내면화의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습이론적 입장에서의 도덕성은 다른 심리적 특성과 동일한 학습의 과정, 즉 보상과 처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학습되는 특수한 행위와 회피면에서 도덕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의 학습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요인으로 벌, 보상, 모방과 동일시를 들고 있다. 학습이론의 기본 가정은 어린이는 심리적 요소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발달 현상은 외적 자극에 의하며, 이 외적 자극과 어린이 자신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학습이론은 아동의 지적 수준이나 연령보다는 어떤 경험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도덕성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행동주의자들은 아동이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성인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성인의 중재가 없다면 아동은 생물학적 동기의 만족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즉, 상과 벌에 의한 도덕적 행동의 실천을 조정함으로써 도덕적 성향을 형성한다.<sup>38)</sup>

행동주의 이론은 인지이론에서 도의화된 동기의 측면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나, 심층수준에 관한 언급없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행동의 자극과 반응의 체제를 중요시 한다.

둘째는, 내면화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도덕성은 내면적 준칙을 습득하고 이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평가하여 조직해 나가는 것으로 초자아라는 말로 표현된다. Freud 학파에 의하면, 도덕적 규범은 주로 반사회적 행동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욕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신분석이론의 일반적인 관심은 이러한 규범들을 위반했을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죄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Freud는 양심을 판단의 권위로도 생각하지만 생득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즉 어린이를 충동의 덩어리로 보고 그대로는 도덕적 행동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린아이는 성장해 감에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구별해 내고 점차로 사회의 규범에 따르는 행동을 하려는 성향을 형성한다. 행동주의 이론은 도덕성 발달을 위해 성인의 중재를 필요로 하는 반면, 정신분석이론은 도덕적 행위를 무의식이 지배하는 행위로 보고 인격 혹은 성격의 깊은 곳에 도덕적 통제 의 원리가

<sup>37)</sup> 서 봉연, 이 규봉, 「도덕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제 24집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1963, p.2.

<sup>38)</sup> 이 돈희, 「도덕교육」, 1978, p.249.

있다고 생각한다.<sup>39)</sup> 그러나 정신분석학이 주장하는 무의식의 힘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그것은 무의식의 힘으로 실천된 도덕적 행동은 행위자의 업적일 수도 없거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정신분석학자들은 도덕적 비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의식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 혹은 성인에 대한 공포감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의한 행동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이라 하기는 어렵다.<sup>40)</sup>

세째로, 내면화의 판단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지적 입장에서의 도덕성이란,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실제적 판단력 및 판단의 일관된 행동이며, 발달에 대한 연구로서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나 의도가 이성과 사고의 산물이어야 하며, 여기에 판단과 행동이 포함되려면 이는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판단,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능적 충동에 의한 죄악감, 금기, 양심, 강박관념 등을 망라하는 소박한 감정은 이 도덕성의 범위 속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도덕적 과제에 대하여 선악의 판단능력이 내면화된 것이 도덕의 핵심이며, 도덕적 발달이란 바로 이 도덕판단능력의 발달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학자는 Piaget와 Kohlberg이다. J. Piaget는 도덕성의 발달을 개인의 도덕판단이 자신의 내부인지구조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된다고 하며 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점점 더 안정된 인지구조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sup>41)</sup>

J. Piaget와 Kohlberg는 도덕적 판단의 성장은 발달을 통한 과정 속에서 발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도덕적 판단의 성장은 모범, 강의, 처벌 그리고 포상에 의한 규칙이나 덕성을 명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재구성 과정이라는 것이다.<sup>42)</sup>

J. Piaget의 인지적 도덕발달에 대한 이론을 간추려 보면 크게 네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모든 발달은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둘째, 발달단계는 연속적으로 성장한다.

세째, 도덕발달의 발달은 인지적 발달의 모형을 통해서 발달한다.

네째, 인지발달의 형식적 조작단계를 발달단계의 최종적 경향으로 본다.<sup>43)</sup>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을 개관하면, 그는 개념적으로는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Piaget는 도덕발달은 인지발달 속에 반영되는 것이라 했다. 각 인지발달단계는 각 연령에 따라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형식의 질적 차이를 의미한다. Piaget는 문화적요인이 이러한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그 단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

<sup>39)</sup> 이 돈희, 앞글, 1978, p.248.

<sup>40)</sup> 이 돈희, 앞글, 1978, p.249.

<sup>41)</sup> 이 홍우, 「도덕성의 형성과 발달」(서울: 능력개발사), 1975, p.136.

<sup>42)</sup> R. 더스카, M. 휠런, 정경사 편집부(역), 1984, p.153.

<sup>43)</sup> H.W. Maier, "Three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N.Y.: A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1965, pp.141~144.

다. Kohlberg도 Piaget와 마찬가지로 도덕판단 발달이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했으며 각 단계는 이전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했다. 즉 새로운 단계는 “이전 단계에 나타난 기능적 내용이 분화되고 통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Kohlberg는 이러한 주장을 10개의 가정적인 도덕적 갈등 장면에 대한 7~17세의 100명의 소년들과의 긴 면접에 근거한 것이다.

Piaget와 Kohlberg의 체계는 몇가지 점에서 다르다. 근본적인 차이는 도덕판단 단계의 수와 발달의 최종단계를 보는 관점이다. 즉 Piaget는 ①전도적인 단계 ②관습적 역할동조 도덕 단계 ③자아 수용적 도덕원리의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해, Kohlberg는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①복종과 벌의 단계 : 명성이나 권위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복종, 말쑥을 꾀하는 것.

②소박한 자기중심적 단계 : 옳은 행동은 자기 욕구나 간혹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소박한 평등주의에 의한 판단.

①-②단계는 도덕가치가 인간 또는 표준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외적이며 물리적 사태 또는 나쁜 행동이나 물리적 욕구에서 나타난다.

③“착한아이” 지향단계 : 타인을 시인하고 기쁘게 하고 도와주는 행동지향적 단계, 자연역할 행동 또는 대다수의 상동적 심상에 동조하며 의도에 따라 판단하는 단계.

④권위와 사회질서 지향단계 : 의무를 행하는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며 사회질서 자체를 유지하려는 단계 또 타인의 기대를 중시하는 단계.

③-④단계의 도덕가치는 선하고 옳은 역할을 이행하며 관습적 질서와 타인의 기대 유지를 중시하는 단계.

⑤계약 및 법률 존중단계 : 계약에 의해 의무를 이행하고 타인의 의지나 권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피하고, 대다수의 의지나 복지에 행동하는 단계.

⑥양심 및 원리지향단계 : 사회적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논리적 보편성과 일관성에 따라 선택, 행동하며 상호존중과 신뢰로서 양심지향적 단계.

⑤-⑥단계는 도덕가치로 자아가 판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단계.

두번째 차이점은, Piaget가 도덕적 성숙은 개인의 자발적 판단(대략 12세 가량)이 가능할 때 이루어진다고 한 반면, Kohlberg는 도덕적 성숙은 원리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으로(대략 6단계에 해당)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이 도덕수준은 대부분 20대 전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세번째 차이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도덕판단의 측정방법에 있다. Piaget는 양자 택일적 판단을 요하는 폐쇄형 질문을 면접으로 한 대신에, Kohlberg는 도덕적 Dilemma에 있는 사태를 제시하여 판단하게 하는 개방형의 문항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도덕성에 대한 인지론적 입장은 어떤 상황에서 행동하려면 판단이라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판단이라는 인지구조에 따른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지 발달적 접근에서는 도덕적 상황에 대한 행위자로서 인식과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개념으로 도덕성

을 다루고 있다.<sup>44)</sup>

이상 도덕성의 개념 고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덕성이란 한 문화권 속의 성원들이 익혀왔고, 그 성원 모두에게 기재되어 온 행동형태를 결정하는 행동의 규칙으로서<sup>45)</sup> 어떤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사태인지와 의도적 선택의 여지를 갖춘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 상태에까지 규범을 창조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 B. 도덕성과 아동

Piaget는 도덕성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즉 어떤 규범을 근거로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 발달이란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며 사회적 환경내의 제 규범을 어떻게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아동의 도덕판단능력의 발달을 규칙에 대한 태도, 도덕적 책임감, 공정성의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했으며, 이를 통해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을 크게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sup>46)</sup> 여기서 도덕적 책임감이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행동의 의도를 어느 정도나 고려하는가 하는 문제로써 도덕성 발달연구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Piaget는 아동이 행동을 판단하는데 의도와 동기에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 물리적 결과에 집점을 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실, 거짓말, 도둑질 등의 문제사태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반응을 보았으며, 행동의 책임 소재에 따라 객관적인 책임과 주관적인 책임의 단계를 나누고 있다. 객관적인 책임은 도덕적 실재로와 통하는 것으로서 행동의 규칙을 어기려는 악의나, 규칙을 지키려는 선의와는 관계없이 규칙과의 물질적인 일치 즉 행동적 결과의 물질적 손상의 크기나 양에 의해서만 판단되어 진다. 또한 거짓말에 있어서도 속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물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인지적·사회적으로 성숙하게 됨에 따라 성인에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습득하게 되며,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타인의 외현적인 행동결과보다는 그의 의도나 사고, 동기 등에 대해 추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행동의 결과보다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의 행위에 대한 동기나 의도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sup>47)</sup>

Piaget는 과실, 거짓말, 도둑질 등의 도덕적 책임감에 관한 연구에서 문제사태를 제시할 때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아주 나쁜 경우와 좋지 않은 의도에서 했지만 결과가 조금 나쁜 경우의

<sup>44)</sup> 김경희, "한국아동의 도덕적 발달에 관한 실험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1집, 한국유아교육학회, 1976, pp.11 ~ 12.

<sup>45)</sup> 김재은, "어린이의 도덕적 발달," 이성진, 허형(편), 「국가발전과 어린이」(서울:배영사), 1983, p.52.

<sup>46)</sup> J. Piaget, 「아동·청년 발달론」, 김동규(역), 1982, pp.1 ~ 3.

<sup>47)</sup> J. Piaget, 김동규(역), 앞글, pp.171 ~ 194.

두가지 행동중에 어느 아동이 더 나쁜가? 왜 더 나쁜가?에 대한 반응을 얻어, 아동의 도덕성은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자율성은 8~10세에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sup>48)</sup>

이러한 Piaget의 도덕발달이론 및 그가 사용한 문제사태의 모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 연구들이 발견한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의도에 기초해서 행동을 판단하는데, 어린 아동들은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한 아동에게 더 큰 잘못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Piaget의 원래의 방법론에 기초를 두어 연구를 했는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좋은 동기의 제시와 비교적 적은 손상을 가져온 나쁜 동기의 예를 말로 전했을 때 8~9세 이전의 아동들은 결과의 뒤에 놓여있는 동기나 감정에 개의치 않고 도덕적 행위의 성과와 나타난 결과에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8~9세 이전의 아동들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그 행동의 의도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Piaget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Hebble은 도덕적 판단력에 관한 개인적 평가척도를 국민학교 아동에게 실시한 결과 9세에서 비로소 행위의 의도를 고려하는 비중이 더 많아지는 주관적 책임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으며<sup>49)</sup> Suber는 97명의 유치원·국민학교 2학년과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별로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의도와 결과를 대비시킨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도를 고려하는 정도가 의의있게 높아졌다고 하였다.<sup>50)</sup>

Weiner와 Peter의 연구에서도 8~9세 이하의 아동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그 행동의 의도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sup>51)</sup>

한편 근래에는 아동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변인들에 관해 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 Turiel의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는 Piaget의 실험 방법을 비판하면서 Piaget의 문제사태는 좋은의도-많은손실, 나쁜의도-적은손실의 경우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좋은의도-적은손실, 나쁜의도-나쁜결과의 경우도 같이 제시해 보아야 아동의 정확한 판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와 같은 입장에서 Armspy는 Piaget의 문제사태는 우연적인 행동과 의도적인 행동과를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므로 의도성의 발달에 관한 보다 타당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행동을 대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sup>52)</sup>

이와 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Hebble은 Piaget의 실험에서 사용된 방법을 바탕으로 도덕

48) 앞 글, pp.171 ~ 194.

49) P.W.Hebble,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Judgment of Infant," *Child Development*, 42, 6, 1971, pp.1203 ~ 1215.

50) C.F.Suber, "Developmental Process in Social Inference: An Aging of Intentions and Consequences in Moral Judg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 1977, pp.654 ~ 665.

51) Weiner and N.Peter, "A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f Achievement and Moral Judg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9, 1973, pp.290 ~ 309.

52) R.E.Armspy, "A Reexamination of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2, 1971, p.1241.

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각 모든 이야기를 의도와 결과에 있어서 각기 두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 수준에 따라 좋은의도-적은손실, 좋은의도-많은손실, 나쁜의도-적은손실, 나쁜의도-많은손실의 4가지 4태로 나누어 도덕적 판단력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때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와 행위의 의도를 고려하는 정도를 구체적인 점수로 산출하여 도덕성 발달의 경향과 아울러 타인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sup>53)</sup>

### Ⅲ. 연구 방법

#### 1. 대 상

본 연구의 대상은 5, 6세인 유치원 아동 60명이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D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사회계층으로 볼때 이 아동들은 중류 가정의 아동들이다.

이 아동들은 연령, 남녀, 수, 부모의 교육수준이 같도록 무선배정하여 동질집단임을 가정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는 조망수용검사와 도덕판단 반응을 보기 위한 도덕성 측정도구 2가지이다.

##### A. 조망수용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Kurdek 과 Rodgon<sup>54)</sup>의 조망수용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지각조망수용검사, 인지조망수용검사, 감정조망수용검사의 3가지 하위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김미숙이 사용한 것을 참고로 하였다.<sup>55)</sup>

##### (가) 지각조망수용검사도구

지각조망수용검사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Kurdeck 과 Rodgon의 지각조망수용검사의 특징은 첫째, 자극재료가 상상적인 그림이 아니고 알아볼 수 있는 소형 장난감들이었다. 둘째, 조망대상이 인형이 아니고 실제 인물인 실험자였다. 셋째, 반응 방법에 있어서 그림들 중에서 고르게 하는 그림지적반응, 즉 재인방법이 아니고 쟁반을 돌리게 하는 구성반응을 택하였다.<sup>56)</sup>

<sup>53)</sup> P.W.Hebble, 1971, pp.1204 ~ 1205.

<sup>54)</sup> L.A.Kurdek & M.H.Rodgon (1975), pp.645~646.

<sup>55)</sup> 김 미숙, "사회극화 놀이를 통한 유아의 조망수용 향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985, pp.29 ~ 32.

<sup>56)</sup> 앞 글, p.30.



이 도구는 3가지 인형이 놓여 있는 똑같은 2개의 쟁반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실험자용이고, 다른 하나는 피험자용이다. 인형들은 아동들이 친숙한 것으로 앞·뒤·좌·우가 뚜렷이 구분되고, 색상이 선명한 플라스틱 제품이다. 인형들의 높이는 15 cm 정도이며, 쟁반에 붙여져 있고 쟁반은 돌릴 수 있다. 인형들이 쟁반에 놓여진 위치와 얼굴의 방향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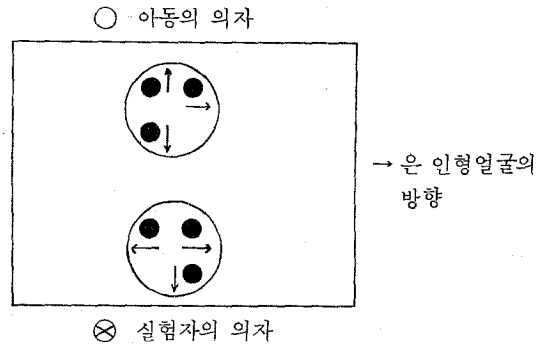


그림 1. 지각조망수용검사도구 배치도

#### (나) 인지조망수용검사도구

인지조망수용검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Kurdek 과 Rodgon의 과제는 Flavell, Botkin, Fry(1968)가 고안한 것과 절차는 Selman(1971)의 것을 수정하여 이 검사를 만들었다. 이 과제의 특징은 아동으로 하여금 낯선 사람이 아닌 친구의 관점을 가설적으로 취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Kurdek 과 Rodgon의 과제를, 주인공을 유아로 바꾸고 색을 칠하여 사용했다. 이 도구는 일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7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었다.

#### (다) 감정조망수용검사도구

감정조망수용검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Kurdek 과 Rodgon은 Broke(1971)의 검사도구를 수정하여, 과제의 반을 그림에서 묘사되는 상황과 인물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표정이 일치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urdek 과 Rodgon의 과제 중에서 예비검사를 통해 아동들이 감정추론에 어려움을 느끼는 불일치 상황에서의 즐거움, 두려움, 화남의 내용을 좀 더 쉽게 고치고, 주인공을 유아로 바꾼 김미숙의 연구를 참고로 했다.<sup>57)</sup> 이 과제는 12장의 그림으로 되어있다. 이 중에서 4장은 즐거운 표정, 슬픈 표정, 두려운 표정, 화남 표정이 그려진 얼굴그림으로 준비단계에서 표정과 감정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즐거움, 화남, 슬픔,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장면에서 등장 아동이 그 장면에 적절한 표정을 짓고있는 그림 4장은 실험의 첫단계에서 사용되었다. 나머지 4장은 실험의 둘째단계에서 사용했는데 아동의 얼굴표정과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적조망수용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이 등장 인물의 감정적인 상태를 예언함에 있어서 아동자신이 그 사태에서 어떻게 느낄 것인

<sup>57)</sup> 김 미숙(1985), 앞 글, p.31.

가에 근거하여 반응하는 것과 구별시키기 위해서이다.

### B. 도덕적 판단력 측정도구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Piaget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Hebble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덕성 척도는 Hebble의 도덕성 판단을 위한 4개의 사태에 준하여 구분하였다. 즉 좋은의도-적은손실, 좋은의도-많은손실, 나쁜의도-적은손실, 나쁜의도-많은손실의 4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문항수는 12개의 문항으로 Piaget의 도덕성 영역과 Hebble의 도덕성 척도구분에 의하여 이 기우가 작성한 질문을 유치원 어린이의 이해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 보완하였다.<sup>58)</sup> 질문의 내용은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관계되는 그림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아동에게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주인공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를 아동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였다. 아동의 판단은 네단계로 구분하여 점수화 시켰다. 즉 나쁘지 않다 1점, 조금나쁘다 2점, 많이나쁘다 3점, 아주 많이나쁘다 4점까지 점수화하였다. 이것을 의도성 지수로 환산하여 도덕적 판단력으로 평가한다.

## 3. 연구절차

### A. 예비검사

본 검사를 실시하기 앞서 1986년 9월 15일~17일까지 5세아 5명, 6세아 5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했다. 예비검사에서는 이야기나 질문에서 사용될 말이 어려운 것이 있는지의 여부와 이야기와 보조그림에서 의도했던 대로 반응하는가를 알아 보았다.

조사에 사용된 시간은 개인당 20분 정도였으며, 검사 실시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B. 본검사

본검사는 1986년 10월 2일~10월 8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검사방법은 개별면접이며, 검사는 유치원의 빈 방을 이용하여 자유놀이 시간과 방과후에 실시하였다.

본검사에서는 연구자 이외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사람 1명이 검사자로 참여하였다. 사전에 검사도구와 그 사용방법과 검사내용을 충분히 토의한 후에 참여했다.

##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에 의해 전산처리되었다. 사용된 통계방법은 연구문제 I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 II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

<sup>58)</sup> 이 기우, “자기중심적-타인중심적 사고와 판단력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미간행), 1982, p.32.

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망수용능력과 도덕판단과의 관계

3 가지 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판단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나타난것 처럼 3 가지 조망수용능력중 도덕판단력과 인지적조망수용능력간에는 .5883으로 3개의 조망수용능력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지각적조망수용능력은 .4029로 유의있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조망 수용능력은 도덕적판단력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3 가지 조망수용능력과 도덕판단력간의 상관계수 (N = 60)

	지각적조망	감정적조망	인지적조망
도덕판단력	.4029 ***	.1466	.5883 ***

\*\*\* P < .001

##### 2. 세가지 조망수용능력의 상호관계

3 가지 조망수용능력 간의 상호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3 가지 조망수용능력 간의 상호 상관계수

	지각조망수용능력	감정조망수용능력	인지조망수용능력
지각조망수용능력	1.0000		
감정조망수용능력	-.0290	1.0000	
인지조망수용능력	.3101 ***	.0288	1.0000

\*\*\* P < .01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각 조망수용능력 간의 상관은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각적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조망수용능력 간에는 .3101로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 유의있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P < .01).

지각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망수용능력 간에는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감정조망수용능력과 인지조망수용능력 간에는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세가지 조망수용능력과 나이와 성별변인간의 차이

지각조망수용능력과 나이와 성별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지각조망수용능력과 나이와 성별변인의 변량분석 결과

변 산 원	자승화 (SS)	자유도 (df)	평균자승화 (MS)	변량추정치
A : 나이	1.667	1	1.667	2.745*
B : 성별	.067	1	.067	.110*
A × B : 나이 × 성별	.267	1	.267	.439*
error 처치내	34.000	56	.607	

\* P &lt; .05

표 3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지각조망수용능력에서 나이와 성별변인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5). 즉, 본 연구에서는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더 지각적조망수용을 잘하며, 5세아동보다 6세아동의 지각적조망수용능력이 더 높다는 의미이다. 이는 Kurdek과 Rodgon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감정조망수용능력과 나이와 성별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감정조망수용능력과 나이와 성별변인의 변량분석 결과

변 산 원	자승화 (SS)	자유도 (df)	평균자승화 (MS)	변량추정치
A : 나이	.267	1	.267	.491
B : 성별	1.667	1	1.667	3.070
A × B : 나이 × 성별	.600	1	.600	1.105
error 처치내	30.400	56	.543	

표 4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감정조망수용능력과 나이와 성별변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인지조망수용능력과 나이와 성별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인지조망수용능력과 나이와 성별변인의 변량분석 결과

변 산 원	자승화 (SS)	자유도 (df)	평균자승화 (MS)	변량추정치
A : 나이	2.400	1	2.400	6.420*
B : 성별	.670	1	.670	.178
A × B : 나이 × 성별	.000	1	.000	.000
error 처치내	20.933	56	.374	

\* P &lt; .05

표 5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인지조망수용능력과 나이변인에서만 유의있는 차이가 있고, 성별변인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석 정미의 실험결과와 Kurdek과 Rodgon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 판단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또한 조망수용의 하위변인들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어떤 발달 경향을 보이는지와 도덕적 판단력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 5·6세 아동에 있어서 세가지 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 판단력 간에는, 인지적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 판단력 간에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지각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 판단력 간에는 유의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나, 감정적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 판단력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조망수용능력 중에서 인지적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판단력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Piaget 나 Kohlberg 가 도덕적 판단과 성장은 강의나 처벌, 규칙이나 덕성을 명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재구성 과정으로 인지발달이 도덕적판단력과 상관이 있음을 언급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3가지 조망수용능력들 사이에는 개념적으로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세가지 조망수용능력간의 상관은 대체적으로 낮았다. 그 중에서 지각적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조망수용능력 간에만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적조망수용능력과 감정적조망수용능력 간에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감정적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조망수용능력 간에는 상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조망수용능력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고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그리고 도구들 간의 난이도 등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조망수용능력의 유의있는 성차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6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지각적조망수용을 유의있게 더 높게 나타냈고, 석 정미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수리-공간추리능력이 우수하여 공간적 배열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추론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지적조망수용능력은 5세 아동보다 6세 아동이 유의있게 높게 나타나 나이변인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성별변인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적조망수용능력은 나이와 성별변인에 따른 유의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 판단력 간에는, 조망수용의 하위변인중 인지적조망수용능력과

도덕적 판단력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둘째, 세가지 조망수용능력 상호간의 상관은 낮았다. 지각적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조망수용능력에만 유의있는 정적상관을 보였을 뿐, 감정조망수용능력과 인지조망수용능력간에는 상관이 매우 낮고, 지각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망수용능력간에는 부적상관이었다.

세째, 지각적조망수용능력에서 연령과 성별변인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6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지각적조망수용능력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적조망수용능력은 나이변인에만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조망수용능력도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감정적조망수용능력은 나이와 성별변인에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때, 5·6세 아동의 도덕적 판단능력과 연관된 인지적 능력의 설명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곽 해신, "유아의 도덕적 증진을 위한 성경이야기의 구성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 김 경희, "한국 아동의 도덕적 발달에 관한 실험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 1집, 한국유아교육학회, (1976).
- 김 미숙, "사회극화 놀이를 통한 유아의 조망수용 향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 재은, "어린이의 도덕적 발달," 이 성진, 허 형(편), 국가발전과 어린이(서울:배영사), (1983).
- 김 경오, "모자관계에서 감정조망과 인지조망," 빼아제 연구, 한국심리학회 발달심리연구회(편), (서울:서울대학 출판부), (1982).
- 더스카, R. 휠런, M. 인지발달론, 정경사편집부(역), (서울:정경사), (1984).
- 문 회영, "5·6세 유아의 감정어입과 이타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서 봉연, 이 규용, 도덕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제 24집, (서울:중앙교육연구소), (1963).
- 서 봉연, "한국 아동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 관한 일 연구," 빼아제 연구, 한국심리학회 발달심리연구회(편),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석 정미, "아동의 대인지각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이 기우, "자기 중심적-타인 중심적 사고와 도덕적 판단력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이 둔희, 도덕교육, (서울:교육과학사), (1978).
- 이 춘재, "공간조망 과제에 있어서의 아동의 해결 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3).
- 이 홍우, 도덕성의 형성과 발달, (서울:능력개발사), (1975).
- 플라스키, M. A., 어린이를 위한 피아제 이해, 이 기숙, 주 영희(공역), (서울:창지사), (1982).
- 피아제, J. 「아동·청년 발달론」, 김 동규(역), (1982).

- Armstrong, R.E., "A Reexamination of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 (1971).
- Broke, H.,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1971).
- Eisenberg-Berg, N. and R. Lennon, "Altruism and the Assessment of Empathy in the Pre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51, (1980).
- Fishbein, H.H., S.Lewis and K.Kerffer, "Children's Understanding of Spatial Relations: Connotation of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972).
- Flavell, J.H., P.T.Botkin, C.L.Fry, J.W.Wright and P.E.Jarvis, *The Development of Roleta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Children* (New York: Wiley), (1968).
- Gnepp, "Child's Social Sensitivity: Intrring Emotions From Conflicting Ca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9, No.6, (1983).
- Gove, F.L. and D.P.Keating, "Empathic Role-Taking Precursors," *Development Psychology*, Vol.15, (1979).
- Gravey, C., R.Hogan, "Social Speech and Social Interaction: Egocentrism Revisited," *Child Development*, 44, (1973).
- Hebble, P.W.,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Judgment of Infant," *Child Development*, 42, 6,(1971).
- Kohlberg, L.,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 Moral Ideology,"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Russell Sage Foundation), (1975).
- Kurdek, L.A. and M.M.Rodgon, "Perceptual,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n Kindergarden Through Six-Grad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1975).
- Landry, M.O. and K.Lynos-Ruth, "Recursive Structure in Cognitive Respective Taking," *Child Development*, 51, (1980).
- Maier, H.W., *Three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N.Y.: A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1985).
- Marvin, R.S., M.T.Greenberg, and D.G.Mossler, "The Early Development of Conceptual Perspective Taking," *Child Development*, 47, (1976).
- Reichenbarch, L. and J.C.Master, "Children's Use of Expressive and Contextual Cues in Judgment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54, (1983).
- Selman, R.L. and D.E.Byrne, "A Structural Developmental Analysis of Levels of Role Taking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5, (1974).
- Shantz, C.U.,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5, ed. E.M.Hetherington, Chicargo: University of Chicargo Press), (1975).
- Suber, C.F., "Developmental Process in Social Inference: Averaging of Intentions and Consequencies in Moral Judg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 (1977).
- Turiel, E., "An Experimental Test of Sequentiality of Development Stage in the Child's Mor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6, (1960).

## A Correlational Study on Perspective Taking and Moral Judgment of 5~6 Years Old Children

Lee Hyeon Hee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University*

### *>Abstract<*

This thesis is to ex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perspective taking and Moral judgment, and further, it is aimed at finding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developing tendencies accompanied by variable factors with distinction of sex.

The questions of this study for these purpose are as follows :

Firstly, is there a static correlation between perspective taking and moral judgment of children? Secondly, is there any difference on the perspective taking with regard to distinction of age and sex?

The subject for the study are 60 in numbers of 5,6 years old, who attended D. Kindergarden with their parental status of middle class home level. The survey instruments of perspective taking as the three tasks of perspective taking by Kurdek and Rodgon.

On the other hand, the survey instrument of moral judgment have been applied through the four divisional cases on the moral judgment of Hebble, good intention-little loss, good intention-much loss, bad intention-little loss and bad intention-much loss. The data of the studies result have been revealed to obtain coefficient of probability of person for finding out the correlation between perspective taking and moral judgment, and analyzed binary dualistic variable factors of age and sex for perspective taking and moral judgment.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

1.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re exists a sta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y only perceptual perspective taking and moral judgment, not by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2. The correlation between perspective takings is found to be low. The correlation between perceptual perspective taking and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is revealed as the highest with static significant relation.

3. Only the perceptual perspective taking exposed an intentional difference in perspective taking



---

and variable factors by age and sex.

The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showed a deliberate difference in the variable factors by age and sex.

The emotional perspective taking has no difference accompanied by age and sex.

Therefore, it may be judged that only the perceptual perspective taking and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is tended to be developing as age increases.

Since there is no difference of variable factors by sex between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t may also come to judgment that no sex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above correlation.

Therefore, it may be observed that the levels of moral judgment are bound to be enhanced as age grows.